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자료집 제12집

유리건판으로 보는 발해 유적

12



**유리건판으로 보는 발해 유적**  
REMAINS OF BALHAE KINGDOM:  
DOCUMENTATIONS IN GELATIN DRY PLATES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자료집 제12집

## 유리건판으로 보는 발해 유적

REMAINS OF BALHAE KINGDOM:  
DOCUMENTATIONS IN GELATIN DRY PLATES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자료집 제12집

## 유리건판으로 보는 발해 유적

REMAINS OF BALHAE KINGDOM:  
DOCUMENTATIONS IN GELATIN DRY PLATES

### 기획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 원고

김동우

### 디자인 및 제작

편집전문회사 꿈과놀다

### 인쇄

반디컴피앤씨

### 일러두기

-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중 발해 관련 사진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 도판번호는 자료집의 게재 순에 의해 별도로 부여하였다.
- 지명과 인명 표기는 한글 음독을 원칙으로 하였다.

## 목차

## CONTENTS

발간사 5

### 일제강점기와 북한 지역의 발해 유적 조사

- |                      |    |
|----------------------|----|
| I. 머리말               | 8  |
| II. 일제 강점기의 발해 유적 조사 | 9  |
| III. 북한 지역 발해 유적 조사  | 13 |
| IV. 맺음말              | 15 |

유리건판의 발해유적 16

### 부록

- |          |     |
|----------|-----|
| 도판목록     | 122 |
| 참고문헌     | 125 |
| Abstract | 127 |



---

## 발간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약 3만 8천여 장의 유리건판 사진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발해와 관련된 사진은 103점으로 매우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이미지 자료가 부족한 당시의 발해 유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발해 유적 조사 내용과 함께 발해 유리건판 사진을 소개합니다. 103점의 유리건판 사진 중 대부분은 북한 지역에 있는 발해 유적을 촬영한 것이라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지역 발해 유적 조사 현황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왕 대조영(재위 698~719)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을 규합하여 698년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발해는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 한반도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중국 당나라로부터는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일컬어질 만큼 고대 동북아시아의 강국이었습니다. 옛 발해의 영토가 지금의 북한, 중국, 러시아에 걸쳐 있기 때문에 3국에서의 발해 연구 성과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발해와 일본이 활발한 교류를 했고 일본의 사서史書에 발해 관련 기사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는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발해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을 침탈하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발해 유적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때 일본의 관학자官學者들이 시행한 발해 조사 성과의 일부가 유리건판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일제가 시행한 조사 결과로 비판의 여지도 많습나다만, 20세기 초반 발해 유적의 현황이 담겨져 있어 발해사 연구의 1차 자료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2월부터 유리건판 사진 전체를 600만 화소의 고화질로 e뮤지엄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간되는 『유리건판으로 보는 발해 유적』이 발해사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일제강점기와 북한 지역의 발해 유적 조사

- I. 머리말
- II. 일제 강점기의 발해 유적 조사
- III. 북한 지역 발해 유적 조사
- IV. 맺음말



## I. 머리말

발해渤海(698~926)는 고왕高王 대조영大祚榮(재위 698~719)이 동모산東牟山(현 중국 길림성 돈화시)에 세운 나라로, 대동강 이남 지역을 통합한 통일신라와 공존하였다. 발해는 당시 주변 국가인 당, 통일신라,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렸다. 발해의 영토는 지금 현재 중국의 동북 3성東北三省, 러시아 연해주, 북한 지역에 걸쳐있는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발해 관련 문헌자료는 매우 적은 편인데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를 기록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과 일본의 사서史書에 산재하고, 일부 금석문과 발해인이 지은 문학 작품들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자료의 부족은 발해사 연구에 제약이 되었고, 발해인이 남긴 유적과 유물이 문헌 부족의 한계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유리건판을 3만 8천여 점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중 발해 유적을 담은 유리건판 103점을 소개한다. 적은 수량이지만, 가보기가 어려운 북한 지역의 발해 유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당 지역의 개발과 유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20세기 전반기의 사진이라 그 자료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자료집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발해 유적 조사 과정과 북한 지역 유적 조사 과정 살펴보고, 유리건판에 담긴 발해 유적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 II. 일제강점기의 발해 유적 조사

발해 유적 조사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시작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이권을 획득하였다. 일본은 1905년 포츠머스조약과 청일만주선후조약淸日滿洲善後條約에 의해 1906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를 설립한다. 이어 1908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동경 지사에 만선역사지리조사부滿鮮歷史地理調查部가 설치되고,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야니아 와타리[箭內互],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마쓰이 히토시[松井等],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등이 조선사와 만주사를 연구하였다.<sup>1</sup> 이때 만주 지역의 발해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주로 상경성 등 도성지가 대상이었다.

시라토리는 1908년 상경성에서 문자가 있는 기와를 얻었는데 대략 여진문자와 비슷하나 자못 같지 않은 점이 있어 발해문자로 추측하기도 했다.<sup>2</sup> 또한 그는 1910년 7~9월에 중국 동북지방을 답사하면서 상경성을 간략한 조사하고 발해의 연화문와당과 보상화문 방형전 등을 수습하였다. 보상화문전이 통일신라의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조사한 유적의 규모가 매우 커서 상경성이라고 생각하였다.<sup>3</sup>

만선역사지리조사부는 1913년 『만주역사지리滿洲歷史地理』 2권과 지도 1권을 발간하였다. 이 책들은 시라토리가 감수하고 야니아 와 이나바, 마쓰이가 함께 저술하였다. 발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마쓰이가 집필한 「渤海國の疆域」이다. 이후 남만주철도회사가 조사부를 폐지하였는데, 시라토리가 이 연구 사업을 도쿄제국대학으로 옮겨 1915년부터 1941년까지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6책을 내었다.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침탈한 후,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편집과에서 1911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를 촉탁하여 1916년까지 교과서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인 사료조사를 시행하였다. 도리이는 1911년 8월 29일부터 1912년 3월 17일까지 1차 사료조사를 함경남북도와 간도 지역에서 시행하였다.<sup>4</sup> 이때 그는 현재 발해 동경東京으로 지정되고 있는 훈춘琿春 팔련성八連城과 함경남도 북청군 토성리의 청해토성, 함경북도 청진 부거리의 고분 등의 모습을 유리건판으로 남겼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복명한 『제1회사료조사보고第一回史料調査報告』를 1912년 10월 19일에 데라우치 총독에게 제출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중인 제1회 사료조사 보고의 「고구려 및 발해 고분 유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구려 및 발해<sup>5</sup>

고분유적(고려 및 이조李朝의 분묘를 제하고)

고구려가 이 방면에 세력을 가진 것은 한漢의 현도군玄菟郡의 멸망 후로, 그 시대의 유적이 과연 이곳에 남아있는지 아닌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구려의 유물은 현재 압록강의 서안西岸, 만주의 통구洞溝 부근에 표본이 될 만한 재료가 꽤 많다. 그런데 함경도에는 도대체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함경도에 있어서도 고분이 매우 많고 그것과 유사한 고분 역시 있는데, 이곳에 주의할 것은 고구려와 발해와의 관계이다. 고구려가 한번 멸망한 후에 잔류한 사람은 많은데, 북쪽으로 가서 장백산長白山 부근에 거주하는 말갈靺鞨로 들어가고, 그리고 당唐에 도달해 발해의 조정이 현재의 장백산 부근에 설립된 것은, 말갈에 의해 그 왕국이 세워졌다고 보기보다는 바로 그 북쪽으로 간 고구려의 유민이 말갈인과

1. 旗田巍, 1951, 『朝鮮史』 序文, “일본의 대륙정책의 진전에 … 짝하여 일본학계의 관심도 조선에 집중되었다. 그 후 만주철도회사에서 滿鮮經營를 시작하게 되자 만철에 역사연구실이 설치되고 그곳에서 白鳥庫吉 박사를 위시하여 池內宏, 津田左右吉, 稻葉岩吉 등이 조선사와 만주사를 연구하였다.”

2. 金毓黻, 1934, 『渤海國志長編』, 華文書局, 千華山館; 1977, 『渤海國志』, 宋遼金元四史資料叢刊(一), 臺北 文海出版社, 375쪽; 朱國忱·朱威, 2002, 『渤海遺迹』, 文物出版社, 23쪽.

3. 白鳥庫吉, 1910, 「金の上京就いて」 『史學雜誌』 第21卷 第10號.

4. 국립김해박물관, 2016, 『石器時代 鳥居龍藏 調査 琉璃乾板』(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8집), 22, 26쪽.

5. 『石器時代 鳥居龍藏 調査 琉璃乾板』(2016) 발간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기성 교수가 번역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함께하여 그 왕국을 설립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설명한다면 지금까지 미개未開의 위치에 있는 말갈종족이, 먼 당시 북방에 일본, 돌궐, 그 외의 것과 필적할 문화를 가진 민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 설說은 나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실은 내가 이번 함경도의 조사에 있어서도 크게 동의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고분의 형식이 발해와 고구려와의 구별이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옥저는 그곳에 예부터 거주하였던 것으로, 그들의 유적 역시 또한 남겨져있을 것이다. 이들을 연구하는 데는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고분의 형식 등에 의하여 아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실에 관하여 고구려, 발해를 함께 연구 해나가고자 한다.

함경도에는 많은 고분이 존재한다. 지금 이것을 그 형식에 따라 분류한다면 대략 아래의 6종이 된다.

제1종 형식
이 형식은 일본의 고분과 동일한 것으로, 즉 벽에 큰 돌을 쌓고, 그리고 천정에 큰 수 매의 돌을 석교石橋처럼 늘어놓고, 그 내부에 사체를 매장 하였으며, 입구는 큰 돌을 가지고 밀폐된다. 벽의 주위는 전부 흙으로 덮였고, 외형으로 본다면 하나의 큰 만두饅頭형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형식에 속하는 고분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4리 떨어진 오로촌五老村에 있는데, 이 오로촌에는 이 종류의 고분이 많아, 나는 그 중에서 5개를 발굴하였다. 그 중 한 개와 같은 것은 사자死者의 침상을 돌로 조금 높게 쌓아올리고, 더욱이 그 침상의 위에는 돌베개石枕을 두었다. 이 구조는 일본의 고분과 동일 형식을 가지고 있다.

제2종 형식
이것은 조선인이 『광석廣石』으로 칭하는 것으로, 벽은 돌을 가지고 쌓고, 그 위를 덮는 천정은 한 장의 돌을 올려놓은 것으로, 구미인이 소위 『석괘石机(스톤 테이블)』 또는 『돌멘[ドルメン]』으로 칭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천정석은 벽 상부의 네 귀퉁이의 장소에 돌을 각각 1개씩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한 매의 큰 돌을 올려놓은 것이다. 이 형식이 완전히 남겨진 것은 함경도의 두만강변 회령의 부근, 또한 강을 건너서 간도의 해란하海蘭河 근처인 용정촌龍井村 등으로, 이 용정촌 부근과 같은 곳은 그 수가 천을 헤아릴 정도이다. 그 회령의 동쪽, 황제총皇帝塚에 있는 무수한 고분은 <sup>6</sup> 바로 이것에 속한다. 그리고 단천 부근에도 이 종류의 고분이 있는데, 여기저기에 파괴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토인들을 그것을 부르기를 광석의 명칭으로 한다. 이 광석이라는 것은 한 매의 천정석이 큰 것을 보고 부르는 것으로, 이 부근에 광석으로 부르는 지명이 존재하는 것이 많은데, 이 고분이 있는 곳이다.
이 종류의 고분은 압록강변 통구洞溝에 있는 고구려의 고분에도 많이 존재하며, 더욱이 평안북도 평양 대동강 북안의 고분과도 유사하다. 이것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진 것임이 분명하다. 나는 이들의 사실에서 이 고분은 고구려의 것으로 보았다.

제3종 형식
이 종류의 고분은 『피라미드』의 돌을 석단石段처럼 만들었는데, 큰 돌계단의 위에 또한 작은 돌계단을 쌓아 여러 단으로 거듭 쌓고, 그 위에 돌을 가지고 석곽石槨을 수 개 설치하고 또한 그 위에 작은 돌로 덮었다. 이 형식의 고분은 함경북도 길주 부근 및 간도 용정촌의 제2종의 고분 중에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식의 고분은 그 압록강의 서안西岸 고구려의 유적인 통구의 분묘 중에 보이는 형적形跡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그 고구려 역대의 고분은 모두 이 식式의 가장 큰 것이다. 『위지魏志』의 『고구려전高句麗傳』중에 “積石爲封”이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이다.

제4종 형식
이 고분은 위에서 본다면 사람이 사는 집의 흔적과 같은데, 그 형상은 여러 가지로, 큰 돌을 돌담처럼 쌓고 그것을 늘이거나 줄인 것 등이 있다. 그리고 그 모아진 것도 있고 또는 개별로 있는 것도 있는데, 바로 이 고분의 형식은 그 외몽고 오르혼천[オルホン川] 유역에 존재하는 고분과 같고 일견—見 거주의 흔적과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단천의 북쪽, 북대천北大川 강변 이하면里下面 가산리嘉山里의 언덕 아래에 있다.

제5종 형식
이 형식은 단순하게 사체의 위에 돌을 난잡하게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소위 석총石塚(케른)으로 칭하는 것에 상당한다. 분묘로는 가장 간단한 것으로, 이 종류의 고분이 많이 존재하는 장소는 함흥의 북쪽, 임도원林道元으로, 그리고 조금 있는 곳은 홍원洪原이다.
제6종 형식
이 종류의 고분은 편암片岩과 같이 쪼개지기 쉬운 돌을 지상에 조합하여 석관을 만들고, 그것에 또한 같은 돌로 만들어진 하나의 소규모 석곽으로 둘러싸고, 외부에서 토석을 쌓은 것이다. 이것이 존재하는 곳은 함경북도 부거靑居로, 그 수는 천을 헤아린다.

함경도에 있는 고분의 형식은 대략 이상과 같은 것으로, 나는 그 안에서 나오는 유물 및 그 구조상으로 관찰하면 제1종에 속하는 고분이 가장 오래되고, 제2종, 제3종이 그 다음으로 오고, 점차 제4종, 제5종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그리고 그곳에 주의할 것은 부거에 있는 고분으로, 부거에는 제6종의 고분이 많이 있는데 이 형식은 그 돌의 양 및 구조, 유물 등의 점에서 발해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고분으로서의 규모가 작고 그 이전의 형태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고, 또한 그 안에서 나오는 토기와 같은 것은 그 구조가 점점 진보하고, 토기의 바닥에는 제조할 때에 만들어진 실굽糸尻의 흔적까지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인 부거는 발해 오경五京의 하나인 동경부東京府의 용원현龍源縣, 즉 당시의 소위 일본도日本道로 칭하는 곳에 상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곳은 일명 책성柵城으로 칭하는 곳으로 역사상에 있어서도 지형이 발해의 동경부 용원현의 위치에 해당하고 또한 그 시대 역시 능히 그것에 상당한다. 나는 함경도 및 동간도의 조사를 하면서 이 부거 정도 동시대의 많은 고분이 모여 있는 곳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시대, 위치 및 유물 등에 의해 발해의 동경부의 위치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거의 고분 부근에 하나의 큰 토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 고분과 서로 관계하는 것으로 아마도 당시의 현성縣城의 흔적이지 않을까.
--

제3종 및 제5종의 고분은 오늘날의 조선인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이들은 여진인女眞인이 남긴 것으로, 그들이 과거에 고려인에 정복되었을 때 그 중요한 보물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곤란하여 그것을 묻기 위해 보물을 흙속에 묻고, 그 위를 돌로 덮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기에 그것을 가지고 이 유적을 이탄夷坦으로 칭한다. 나는 그들 고분을 길주 부근에서 발굴하였는데,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무덤으로 결코 보물을 놓아둔 곳은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곳에 주의할 것은 이 제3종의 것은 고구려의 본거本據인 통구의 고분에도 이러한 풍의 것이 있으며, 또한 용정촌에 이것이 제2종의 것과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이 묘는 여진인보다도 오래된 시대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대의 것인가를 말한다면, 이것은 여진 이전의 부여족扶餘族 고구려에 가장 관계를 가진 것이지 않을까.

제1종의 고분은 지금까지 설명한 고분의 형식과는 다르며, 그것은 확실히 일본 내지의 고분과 유사한데, 그래서 이 종류의 총塚은 어떤 사람이 남긴 것인지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1914년에 촬영된 유리건판에는 부거리 토성과 고분, 그리고 현재 발해 중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국 길림성 화룡시和龍市 두도평원에 자리한 서고성西古城이 보인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1909년 통감부 탁지부 건축소 건축물 조사 촉탁으로 임명되어 고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자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1과가 이 사업을 인계받아 1915년까지 매년 고적조사가 시행되었다. 1914년에는 함경북도 부령, 경흥, 경원, 온성, 종성과 간도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등지를 조사했는데, 이때에 해당 유리건판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sup>7</sup>
--

일제는 고적조사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적및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을 1916년 7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로, 「고적조사위원회규정古蹟調査委員會規程」을 조선총독부 훈령 제29호로 공포하였다.<sup>8</sup> 이에 앞서 4월 26일에 고적조사위원을 임명하였고, 고적조사위원회는 1916년부터 1920년까지 고적조사사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였다.<sup>9</sup> 함경남도 북청군 토성리의 청해토성 등을 담은 유리건판은 1919년에 촬영된 것들이다. 고적조사의 일환으로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등이 1919년 9월 22일부터 함경북도

<sup>[1]</sup> 1914년에 촬영된 유리건판에는 부거리 토성과 고분, 그리고 현재 발해 중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국 길림성 화룡시和龍市 두도평원에 자리한 서고성西古城이 보인다

<sup>[2]</sup>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1909년 통감부 탁지부 건축소 건축물 조사 촉탁으로 임명되어 고적조사를 실시하였다

<sup>[3]</sup> 이후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자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1과가 이 사업을 인계받아 1915년까지 매년 고적조사가 시행되었다

<sup>[4]</sup> 1914년에는 함경북도 부령, 경흥, 경원, 온성, 종성과 간도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등지를 조사했는데, 이때에 해당 유리건판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sup>[5]</sup> 일제는 고적조사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적및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을 1916년 7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로, 「고적조사위원회규정古蹟調査委員會規程」을 조선총독부 훈령 제29호로 공포하였다

<sup>[6]</sup> 이에 앞서 4월 26일에 고적조사위원을 임명하였고, 고적조사위원회는 1916년부터 1920년까지 고적조사사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였다

<sup>[7]</sup> 함경남도 북청군 토성리의 청해토성 등을 담은 유리건판은 1919년에 촬영된 것들이다

<sup>[8]</sup> 고적조사의 일환으로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등이 1919년 9월 22일부터 함경북도

<sup>[1]</sup> 6.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5,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 함경북도 회령시 궁심동에 있는 고분들이다. 궁심동 황제총 마을 서쪽에 둘레 160m, 높이 10m 정도인 언덕이 있다. 이 언덕이 큰 무덤과 비슷하여 황제총이라 했고, 마을의 이름도 황제촌이 되었다. 황제총 부근에 고분 200여 기가 분포된 궁심고분군이 소재한다.



성진 및 함경남도 단천, 이원, 북청, 홍원 각 군에 있는 고성지를 탐사하여 촬영하였다.<sup>10</sup> 한편 도리이는 이 해에 6개월에 걸쳐 시베리아와 북만주 일대를 조사하고 러시아 우스리스크 일대 토성을 발해 동경으로 다시 비정하였다.<sup>11</sup>

도리이는 1920년 10월 11일부터 12월 2일에 함경북도와 간도로 고적조사를 시행하였다. 경로는 동경, 경성, 원산, 청진,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등을 거쳤으며 두만강을 건너 용정촌에도 들렀다.<sup>12</sup>

도리이는 선사시대 이전 유적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1920년에 촬영된 발해 부거리 고분 유적 유리관편이 도리이가 작성한 사진원판 목록<sup>13</sup>에 기록되었으므로 북청에서 고분 조사도 병행하였다. 도리야마는 1923~24년 함경북도와 간도의 발해시기 유적과 금대 유적을 조사하였다. 화룡의 서고성과 훈춘의 팔련성을 조사하였고, 1926년에는 상경성 성벽과 궁전지를 조사하였는데, 서고성과 팔련성에서 수습한 기와가 상경성의 것과 동일한 계통이라고 확인하기도 하였다.<sup>14</sup>

도리이는 1927년에 상경성을 답사하였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기와가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있는 토성 출토품과 비슷하다고 했고, 문자가 새겨진 기와와 녹유를 입힌 기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성벽은 흙을 쌓았지만 전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석성의 느낌이 있다고도 하였다.<sup>15</sup> 1929년에 북청 청해토성을 촬영한 유리건판과 1933년과 1939년에 촬영한 부거리 고분군 유리건판을 마지막으로 발해 유적을 담은 유리 건판은 찾아지지 않는다. 1929년의 고적 조사 계획에 함경북도 웅진 패총 조사가 있다.<sup>16</sup>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이 발굴조사를 하였는데<sup>17</sup> 이때 촬영한 듯 하다.

1931년부터는 후지타와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가 주도하는 “조선고적연구회”가 조선총독부를 대신하여 고적조사와 발굴을 담당하였다. 조선고적연구회는 처음에는 미쓰비시(三菱)의 이와사키(岩崎彌太郎) 사장의 도움을 받다가, 1933년 이후 일본학술진흥회, 궁내성, 이왕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다.<sup>18</sup> 따라서 1933년과 1939년에 촬영된 유리전판은 조선고적연구회 활동의 결과물이라 추측되지만 확실한 증빙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1932년 중국 동북지역에 일제는 만주국을 세우면서 발해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전까지는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한 단순 시굴 조사 또는 지표 조사와 같은 것이었다. 1927년 설립된 동아고고학회(東亞考古學會)가 1933~3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상경성을 발굴하고 1939년 발굴보고서 『동경성(東京城)』을 출판하였다.<sup>19</sup> 1937년에는 도리야마와 후지타가 만주국 문교부의 지원을 받아 연길과 화룡 일대의 선사 및 역사시대 유적에 대해 조사하여 『간도성고적조사보고(間島省古蹟調查報告)』(1942)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는 현재 고구려와 옥저 유적과 더불어 서고성, 팔련성 등 발해 유적을 조사한 결과가 실려 있다.<sup>20</sup> 1942년에는 일본군 사이토 마사루(齋藤優)는 팔련성을 발굴 조사하였고,<sup>21</sup> 같은 해 시마다 마사로(島田正郎), 미야케 도시나리(三ヶ俊成) 등과 팔련성 궁전 남문지도 발굴조사하였다. 그리고 서고성 내성 궁전지와 주변의 하남둔고성을 포함한 여러 유적에 대한 실측도를 남겼다.<sup>22</sup>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 내 발해 유적은 일본인들이 주도하여 조사되었다.<sup>23</sup> 이때의 조사 성과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순수한 학술목적を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sup>24</sup>

### III. 북한 지역의 발해 유적 조사

발해 유적과 유물의 고고학적 연구는 발해의 문헌 기록이 적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발해의 영역이 북한 지역까지 미쳤으므로 이 지역 유적 조사는 발해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1911년부터 도리이를 비롯한 일본 학자들의 함경도 지역의 발해 유적 답사와 부거리 고분 조사, 유리관천 촬영 등이 이루어졌다. 이때의 조사는 발해 유적임을 확인하는데 그친 단편적인 것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고, 한국 전쟁 등을 겪는 등의 사정으로 북한에서의 발해사 연구는 침체되었다가 1962년 박시형이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sup>25</sup>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에서 의 발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시형 이전에 도유호가 1957년 고고학이 발해사 복원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함경북도 화대군의 무덤을 발해 유적으로 추측하였다.<sup>26</sup>

북한 지역의 발해 유적 조사는 도유호의 언급이 있는 후에도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주영현 등이 중국의 돈화 오동성, 화룡 서고성, 연길 성자산산성, 훈춘 팔련성 등의 도성 유적과 화룡과 영안의 발해 고분군, 돈화 옥정산 고분 등을 답사하였다.<sup>27)</sup> 1963년 8월 23일부터 1965년 7월 19일까지는 4차례에 걸쳐 중국 동북 지역의 고구려·발해유적을 중국과 북한의 학자들이 '조중공동 고고학발굴대'를 조직하여 공동발굴하였다.<sup>28)</sup> 그리고 주영현은 조중공동발굴보고서를 기초로 발해 고고학 성과를 『발해문화』에 소개하였다.<sup>29)</sup>

박진옥은 함경북도와 연결, 훈춘, 동경성, 상경용천부에서 출토된 화살촉이 고구려의 것을 계승하였음을 설명하였다.<sup>30</sup> 리정기는 1967년 초에 함경남도 북청군 토성리 청해토성과 강원도 문평군 교성리 토성을 소개하였다. 청해토성에서는 도끼날형촉의 변종으로서 날 부분이 V자형으로 화살촉을 수습하였는데 이것을 팔련성터에서 출토된 것과 비교하여 발해인들이 사용한 성터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성리 성터는 성안에서 드러난 기와와 신라의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을 통해 정전군 터라고 추측하였다.<sup>31</sup>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발해유적에 관한 학술기공과 연구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동해안 일대의 발해 유적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up>32</sup> 이러한 성과를 집성하여 김종혁은 『동해안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연구』(2001, 사회과학원)<sup>33</sup>가 간행되었다. 머리말에서는 동해안 일대에서 1980년대 초부터 1997년까지 발굴된 발해의 유적과 유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두 편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고 하였다.

제1편은 새로 조사 발굴된 발해의 유적과 유물을 발해의 평지성과 산성, 발해의 건축지, 발해의 무덤떼, 발해의 도자기 가마터

10. 이순자, 2008,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133쪽.

11. 鳥居龍藏 著·최석영 譯, 2007, 『인류학자와 일본의 식민지 통치』, 서경문화사.

12. 鳥居龍藏, 1921, 「朝鮮咸鏡道と沿海州の先史時代に就いて」『東亞之光』, 第16卷 3・5號.

13.『鳥居委員提出 大正九年度古蹟調查寫真原板目錄(間島及咸境道地方)』

14. 鳥山喜一, 1929, 『渤海の上京龍泉府に就いて』

15. 양시은, 2010, 「일제강점기 고구려 발해 유적조사와 그 의미: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38, 169쪽.

16. 『昭和四年度古蹟調查計畫』

17. 이순자, 2008,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194쪽.

18. 오영찬, 2011,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한국문화』 55, 251쪽.

19. 東亞考古學會, 1939, 『東京城-新海國上京龍泉府址の發掘調査』, 김진광 역, 2014, 『동경성 발굴 보고』, 박문사.; 早乙女雅博, 2003, 『東京城の發掘』 『해동성국 말해』 (서울대학교출판부 특별전 도록).

20. 滿洲帝國 民生部, 1942, 『間島城古跡調査報告』(滿洲國古跡古物調査報告 第3編), 김진광 옮김, 2017, 『일제강점기 간도 발해유적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1. 駒井和愛, 1960, 「渤海東京龍原府宮城址考」, 『慶祝董作賓先生六十五歲論文集』。

22. 劑藤甚兵衛, 1942, 『半拉城: 渤海の遺蹟調査』, 渾春懸公署。

23. 朱國忱·朱威, 2002, 『渤海遺蹟』, 文物出版社, 12~23쪽. 중국인들은 송나라~청 시기까지 동북지역을 탐사하면서 발해 유적에 대해 문헌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1921년 발간된 『寧安縣志』에는 삼경성에 대한 상황이 소개되었고, 삼경용천부 유지 평면도가 덧붙여 있다. 唐魯의 『渤海國志』(1919), 黃維翰의 『渤海國記』(1931), 金毓黻이 편찬한 『渤海國志長篇』(1936)은 발해 연구의 불모한 성과이다.

24. 양시은, 2010, 「일제강점기 고구려 발해 유적조사와 그 의미: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38, 182쪽.

등의 유형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제2편은 ‘동해안 일대 발해 유적의 성격과 계승관계’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리하여 종전에 신라나 여진의 것으로 여겨 왔던 함경남북도의 옛 무덤들을 고구려와 발해의 것으로 밝혔다. 또한 여러 지역에 있는 평지성과 산성을 조사하여 고구려 시기에 축성된 것을 발해 시기에 계속 이용했다고 했다.

주요 성과로서는 함경남도 북청군 소재 청해토성을 발해 5경 중에 하나인 남경남해부로의 소재지로 비정한 것이다. 청해토성은 둘레가 2,132m로 여타 도성의 크기와 비슷하고 주변에 룡전리산성, 안곡산성, 거산성 등의 위성으로 거느렸으며, 런던봉과 석매봉 봉수대와 평리 무덤떼, 금호지구 오매리 절터, 토호포로 비정되는 신창항구 등 도성의 위상에 걸맞는 발해 유적이 주변에 산재하고, 입지 조건도 문헌기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연구 성과는 남한 학계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함경북도 부거리 일대를 동경용원부로 비정하기도 하였으나, 훈춘 팔련성설이 더욱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함경남북도 일대의 발해 유적 발굴을 통하여 오래동안 해명하지 못하였던 발해 5경의 하나인 남경남해부의 위치를 찾아내고 발해 유적의 성격을 해명하여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것을 새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논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김중혁은 자평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 조사된 발해 유적은 함경북도 청암구역 부거리, 화대군 금성리의 벽화무덤, 화대군 창촌리 일대, 회령시 궁심무덤떼 등이다.<sup>34</sup>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연변대학교 발해사연구소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함께 부거리 일대의 발해 유적을 발굴조사하였다. 평지성인 부거석성과 산성인 부거토성, 연대봉 봉수대, 독동토성과 독동 고분군, 옥생동 고분군, 다래골 고분군, 합전 고분군, 토성 고분군, 연차골 고분군을 조사하였고, 다래골 무덤 10기와 연차골 무덤 3기를 발굴조사하였다. 이밖에 개심사, 금성리 벽화묘, 동흥리 24개 유적을 답사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연변대학을 통해 남북학술교류를 추진하여 조사보고서를 2011년 출간하였다.<sup>35</sup> 2013년에 지화산과 김광혁이 다래골 무덤떼 2차 발굴보고와 김남일과 김성철의 부거리 연차골 2지구 발해 돌칸흙무덤 발굴보고, 김재웅과 김영일의 다래골 돌칸흙무덤떼 3차 발굴보고는 각각 2008과 2009년에 있었던 연변대학교 발해사연구소와의 공동 발굴 조사 결과이다.

연변대학교 발해사연구소는 2012·13년에 다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같이 함경북도 회령시 일대의 발해 유적을 발굴 조사하였고, 인계리토성, 운두산성, 동진산성, 궁심고분군을 조사하고, 62기의 궁심고분군을 발굴하였다. 이 결과물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으로 2015년에 보고서로 공개되었다.<sup>36</sup> 2012년 4~6월에는 궁심 2지구에서 4기 무덤을 비롯한 30여 기, 9~10월에는 궁심 2지구에서 3기 무덤을 비롯한 20여 기, 2013년에는 궁심 2지구 12기 무덤을 발굴하였다. 김남일과 이정희가 2016년에 발표한 회령시 궁심 2지구 발해무덤떼 돌관무덤(석관묘) 발굴보고에서는 궁심 2지구 7·12·13·17호의 무덤의 조사 결과가 실려 있다.

이렇듯 북한의 발해 유적은 발해의 남경남해부 지역인 함경도에 거의 대부분이 소재하고 있다. 발해는 남경남해부 외에도 서경 압록부를 남서쪽에 설치하였다. 『신당서』 발해전에는 서경압록에는 신神·환桓·풍豊·정正 4주가 있었다고 한다. 신주는 임강시臨江市 일대, 환주는 집안集安의 국내성國內城, 풍주는 무송현 신안촌에 있는 신안고성新安古城, 정주는 부이강富爾江 유역의 환인현 하고성자河古城子 성터가 유력하다. 대략적으로 압록강 연안 지역이며 남쪽으로도 청천강 유역까지가 서경압록부 지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 학계는 서경압록부 대신에 고구려 유민이 세운 소고구려가 그 후국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면서 ‘고려후국’을 제시하고 있다.<sup>37</sup> 때문에 평안도 지역에서는 발해 유적이 조사 보고된 예가 없는 형편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와 북한 지역의 발해 유적 조사를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일본 관학자들에게 의해 함경도와 중국 동북지방의 발해 유적이 조사되었다. 초기에는 답사나 지표조사 등 간략한 조사 연구 활동에 머물렀으나, 1930년대 이후 중국 동북 지방에 만주국이 설립되면서부터는 발해 도성 등지의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행해졌다.

이때 조사 결과 중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들이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리건판은 함경북도 부거리의 부거토성과 고분군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함경남도 북청의 청해토성과, 중국 화룡의 서고성과 훈춘의 팔련성 등의 사진이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의 발해 유적 조사는 대부분 일본 관학자들이 주도했고 중국 학자들은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배제되었다. 이때의 발해 유적 조사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긴 하지만, 일제에 의해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의 조사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다. 중국 학계에서는 일본 관학자들에 의한 발굴 조사 성과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와 약탈적인 발굴조사를 하였고, 결국은 학술적으로 혼란을 불러왔으며 유적을 심각하게 파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함경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북한의 발해 유적은 1950년대 후반부터 도유호에 의해 주목을 받아왔다. 1960년대 초반 주영현 등이 중국 동북지방의 발해 유적을 답사하고, 1963~1965년에 4차에 걸쳐 중국 학자들과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를 조직하여 중국 소재 발해 유적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북한 지역 발해 유적의 조사 역량을 키웠다. 이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과학원에 고고학연구소가 설립되고 여기에 연구 인력이 확충되어 90년대까지는 함경도 동해안 일대의 발해 유적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청해토성을 남경남해부로 비정하게 된 성과가 이 때문에 나온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 단독으로 일부 유적이 조사되었지만, 중국 연변대학교 발해사연구소와 함께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발해 유적 연구는 그간의 발해 유적 발굴 성과와 중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학술적인 견해를 발표하는데 그치고 있다. 발해 유적과 유물 조사는 ‘고구려 계승성’을 논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남북한 학계가 공유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발해 문화는 고대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여 발현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성이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남북한 학자들간의 학술교류와 발해 유적의 공동 조사가 이루어져 서로의 견해를 공유할 필요를 느끼게 하며, 자유로운 학술교류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34. 김남일, 2002-3, 「다래골 및 독동무덤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최응선, 2005-1,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발해벽화무덤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지화산, 김광혁, 2013-2, 「다래골무덤떼 2차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김남일, 김성철, 2013-2, 「부거리 연차골 2지구 발해돌칸흙무덤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김재웅, 김영일, 2013-3, 「다래골돌칸흙무덤떼 3차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장철만, 최준혁, 2015-3, 「화대군 창촌리 발해돌칸흙무덤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김남일, 이정희, 2016-3, 「회령시 궁심2지구 발해무덤떼 돌관무덤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35.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2011,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주34 지화산, 김광혁 보고.

36.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5,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

37. 리대희, 1997, 「『고려후국』의 령역」『발해사연구논문집』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

유리건판의 발해유적

---

# 유리건판의 발해 유적

## 1. 도리이 류조의 제1차 조사(1911~1912)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편집과에서 1911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를 축탁하여 1916년까지 교과서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인 사료조사를 시행하였다. 도리이는 1911년 8월 29일부터 1912년 3월 17일까지 함경남북도와 간도 지역에서 1차 사료조사를 시행하였다. 일정을 보면 도리이는 10월 13일에 북청, 12월 19일 이후 간도, 다음해 2월 29일에 부거에 있었다. 이때 도리이 고향 도쿠시마의 사진원으로 활동하던 이노우에 타츠조우[井上達三]가 촬영하였다.



도 001.  
함경남도 북청의 전 발해거성

도리이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는 『제1회 조선총독부 사료조사 사진첩-함경남북도』에 같은 사진이 남아있다. ‘메이지[明治] 44년(1911) 10월 19일’이라는 촬영 날짜가 찍혀 있고, ‘하천리下天里 발해왕유적渤海王遺跡’ 촬영 대상의 명칭이 적혀있다. 속후면 하천리는 현재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속해있다. 『북청도호부신증읍지』 산천풍토조에 “대속후사 하천산 … 옛날 칭호는 발해고도”라는 기사가 있다. 종로도서관 소장 1918년 제작 신창 지도에는 ‘발해왕고도지渤海王古都址’라 표시되어 있다. 이 옛 성터에 발해 건축지가 있다.



도 002.  
함경남도 북청 하천리 발해왕 석총 북측





도 003.  
함경남도 북청 하천리 발해왕 석총 조사 광경



도 004.  
함경남도 북청 거산산성

함경남도 북청 평리의 거산(해발 120m)에 소재한 성이고, 앞에는 평리고분군이 있다. 돌로 쌓은 성이고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약 4m이고, 둘레는 약 600m이다. 남문터가 확인되었다.





도 005.  
함경남도 북청 남대천에서 본 청해토성

청해토성은 함경남도 북청 하호리에 있는 평지성으로 서쪽에서 남쪽으로 남대천이 감돌아 흐른다. 북청토성, 신창토성, 하호토성이라고 불리운다.



도 006.  
함경북도 부령에서 본 부거리 전경

부거리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에 있다. 부거리 소재지에는 석성(평지성)이 있고 부거천을 따라 약 1.6km 내려온 곳에 부거토성(산성)이 있고 산성 주변에 약 500여 기의 고구려와 발해의 고분군들이 있다. 홍양호(1724~1802)가 경흥부사로 재직할 때 지은 『북새기략(北塞記略)』에 “부령부 동쪽 60리에 있다. 석성은 다 무너졌고 단지 기초와 터만 남았다. 현 서쪽 산에 옛 무덤 만여 기가 있는데 모두 석곽이다. 어느 때의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기록이 있다. 북한에서는 고분군을 세분하여 부거천 동쪽에 옥생동 고분군, 부거토성 주변 서쪽에 토성 고분군, 다래골 고분군, 연차골 고분군, 독동 고분군, 합전 고분군으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도 007.

함경북도 부령 부거성지

부거성지는 부거리 소재지 평지대에 자리잡은 석성이다. 2008년 조사 때는 서벽은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벽은 반원모양으로 되어있다. 서벽과 북벽, 남벽의 서쪽 일부와 동벽의 북쪽 일부가 남아있다고 한다.



도 008.

함경북도 부령 부거토성

부거석성의 남쪽 1.6km 떨어진 부거천 서쪽 산기슭에 부거토성이 자리잡고 있다. 성의 크기는 남북 길이 93m, 동서 너비 60m이다. 토성 주위에 부거리 고분군이 있다.





도 009.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토성 전경



도 010.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토성 전경





도 011.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토성 전경



도 012.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도 013.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도 014.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伏虎寺) 고분군





도 015.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군



도 016.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군





도 017.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



도 018.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군 석관





도 019.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군 석관



도 020.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





도 021.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유적 수혈



도 022.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석관





도 023.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1호 고분 발굴



도 024.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1호와 2호 고분 발굴





도 025.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1호 고분 측면



도 026.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1호 고분과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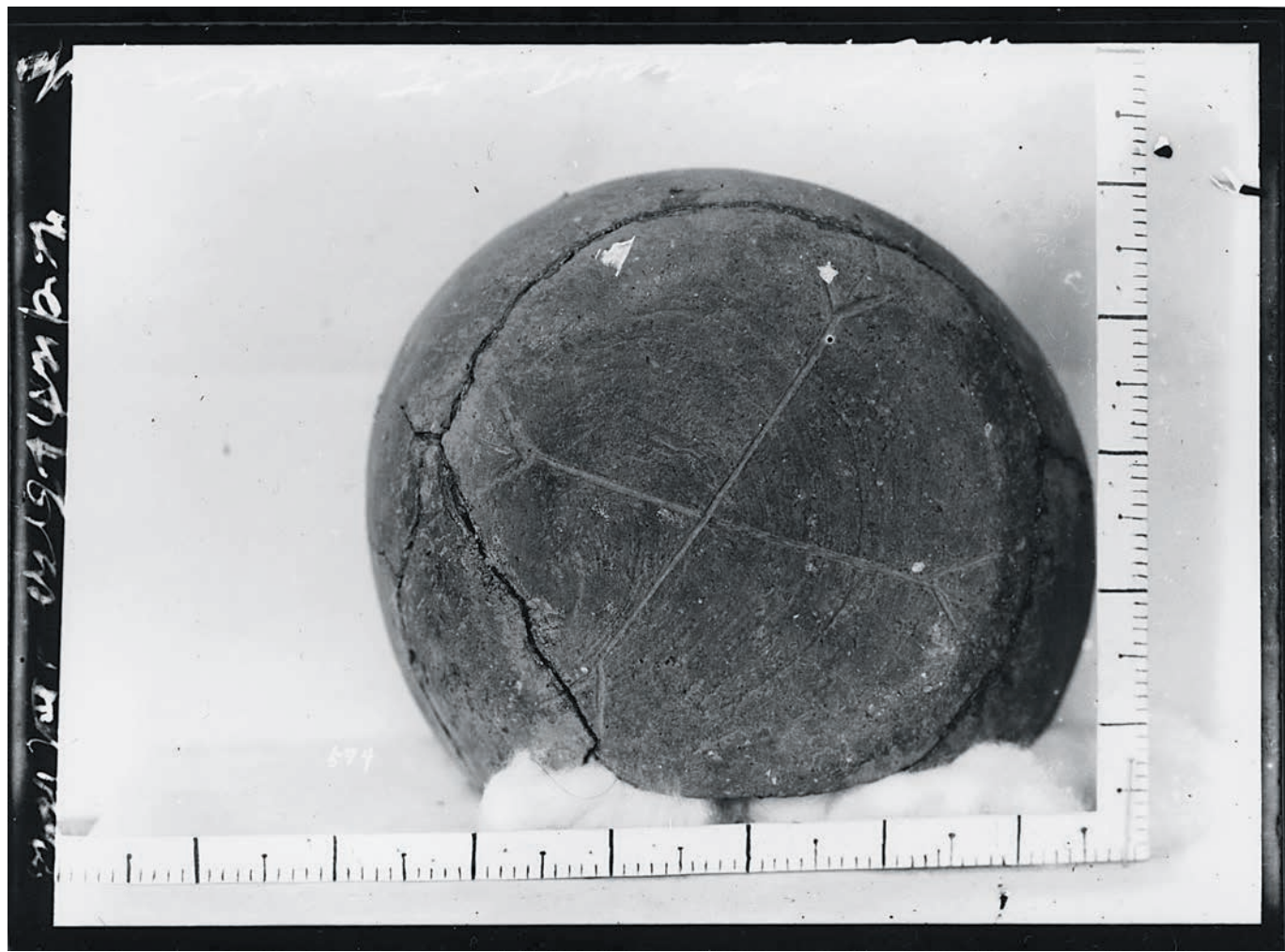


도 027.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2호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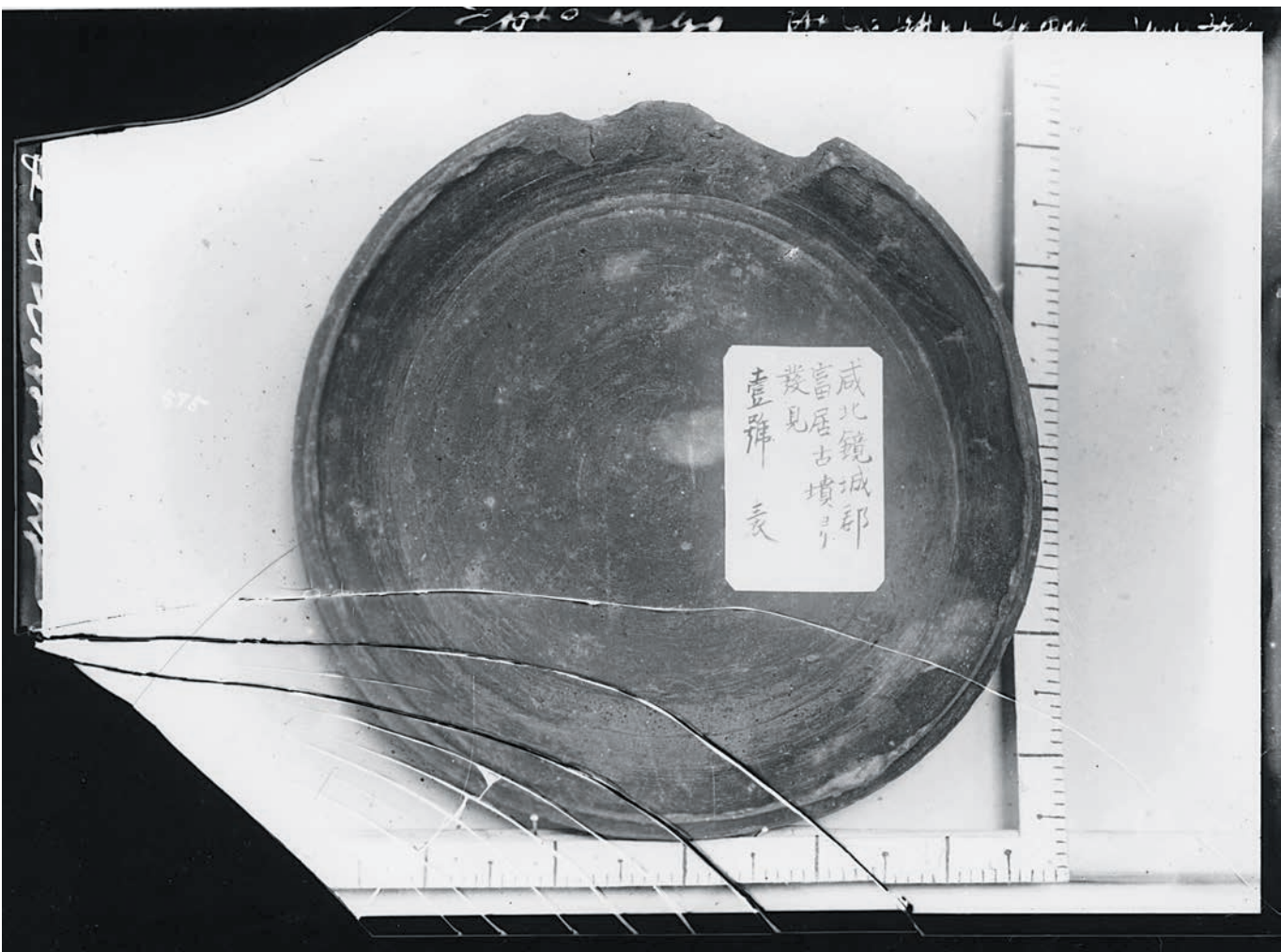


도 028.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출토 안甕





도 029.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출토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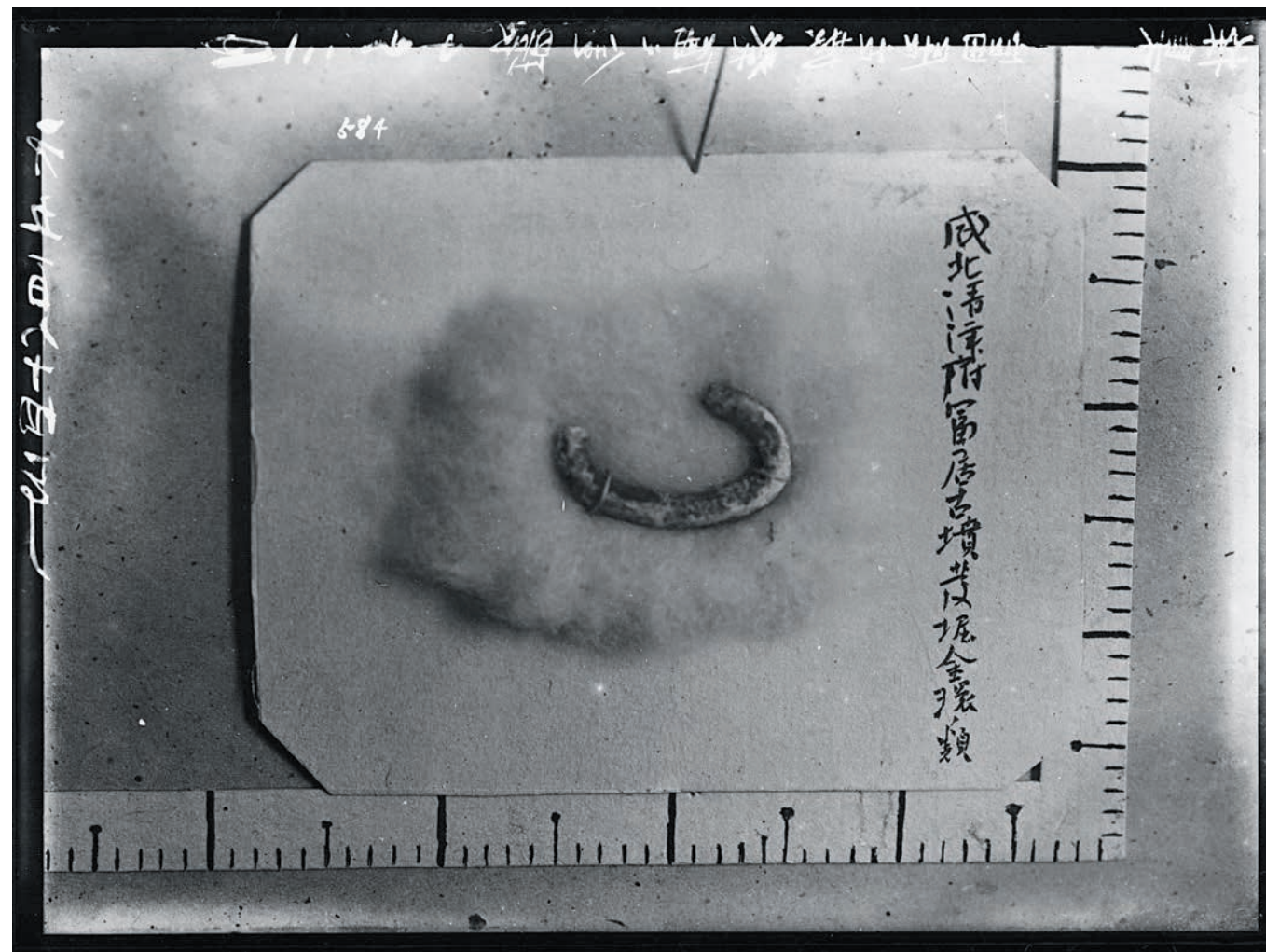


도 030.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출토 반甕





도 031.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출토 반



도 032.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출토 금고리





도 033.  
중국 길림 훈춘 고토성

『메이지[明治] 44년(1911) 제1회 사료조사 사진목록(함경남도, 함경북도, 간도지방)』에 연번 410~414로 훈춘 고토성 일부 사진 2매와 전경 사진 3매가 기록되어 있다. 도리이가 조사 내용을 복명하여 1912년 10월 19일에 데라우치 총독에게 제출한 『제1회 사료조사보고第一回史料調査報告』에 보면 1912년 1월에 훈춘에 갔다고 했다. 고토성은 반랍성半拉城, 팔뢰성八磊城, 팔련성八連城이라 불린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팔련성이라고 하며, 발해 동경용원부로 지정되고 있다. 성 서쪽 약 2.5km되는 곳에 두만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성벽은 흙을 다져 쌓았고 총 둘레는 2,894m이며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이중성이다.



도 034.  
중국 길림 훈춘 고토성





도 035.  
중국 길림 훈춘 고토성 전경



도 036.  
중국 길림 훈춘 고토성 전경



## 2. 1914년 고적조사

1914년에 촬영된 유리건판에는 부거리 토성과 고분, 중국 길림성 화룡시 두도평원에 자리한 서고성西古城이 보인다. 세키노가 1909년 통감부 탁지부 건축소 건축물 조사 촉탁으로 임명되어 고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15년까지 매년 고적조사가 시행되었다. 1914년에는 함경북도 부령, 경흥, 경원, 온성, 중성과 간도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등지를 조사했는데, 이때에 해당 유리건판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 037.  
중국 길림 훈춘 고토성 전경



도 038.  
함경북도 부령 부거토성 원경





도 039.  
함경북도 부령 부거토성



40.  
함경북도 부령 부거토성 서측면





도 041.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 전경



도 042.  
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도 043.  
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



도 044.  
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 정면





도 045.  
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 좌측면



도 046.  
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





도 047.  
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



도 048.  
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





도 049.  
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



도 050.  
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





도 051.  
 중국 길림 두도구 서고성자 토성지 남벽  
 발해 중현덕부로 지정되고 있다. 두도평원 서북부에 있다. 서고성은 외성과 내성이 있는 이중성으로 외성은 흙을 다져 쌓았고 총 둘레는 2,700m이다.



도 052.  
 중국 길림 두도구 서고성자 노성지 북벽



### 3. 1919년 고적조사

고적조사의 일환으로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등이 1919년 9월 22일부터 함경북도 성진 및 함경남도 단천, 이원, 북청, 홍원 각 군에 있는 고성지를 탐사하여 촬영하였다.



도 053.  
함경남도 북청 안에서 본 청해토성 복문지



도 054.  
함경남도 북청 안에서 본 청해토성 복문지





도 055.  
함경남도 북청 청해토성 북문지와 북벽 서부



도 056.  
함경남도 북청 청해토성 북벽 동부와 북문





도 057.  
함경남도 북청 북쪽 밖에서 본 청해토성 서벽



도 058.  
함경남도 북청 청해토성 서벽과 동벽





도 059.  
함경남도 북청 발해왕고도지 석루 동단



도 060.  
함경남도 북청 서쪽에서 본 발해왕고도지 석루



4. 도리이 류조의 제8차 조사(1920)

도리이는 1920년 10월 11일부터 12월 2일에 함경북도와 간도로 고적조사를 시행하였다. 경로는 동경, 경성, 원산, 청진, 회령, 중성, 온성, 경원, 경흥 등을 거쳤으며 두만강을 건너 용정촌에도 들렀다. 도리이는 선사시대 이전 유적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1920년에 촬영된 발해 부거리 고분 유적 유리건판이 도리이가 작성한 사진원판 목록에 기록되어 있다. 도리이는 부령 연천면 연진동에서 석기시대 유물을 채집하였고, 이때 부거리 고분 조사도 병행하였다.



도 061.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이실총 전면  
1914년 촬영된 도 050과 동일한 고분이다.



도 062.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이실총 측면





도 063.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이실총



도 064.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일실총 측면





도 065.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일실총 정면



도 066.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군





도 067.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군과 옹서 방면 전경



도 068.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동쪽 고분군 전경





도 069.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동쪽 고분군 전경



도 070.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중앙부 고분군 전경





도 071.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서쪽 고분군 전경



도 072.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서쪽 고분군과 토성지





도 073.  
함경북도 부령 북쪽에서 바라 본 부거동 토성지 전경



도 074.  
함경북도 부령 서북쪽에서 바라 본 부거동 토성지 전경





도 075.  
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과 토성지



도 076.  
함경남도 북청 청해토성 북벽 외경





도 077.  
함경남도 북청 청해토성 북벽 내경



도 078.  
함경북도 부령 북쪽에서 본 부거 고분군





도 079.  
함경북도 부령 북쪽에서 본 부거 고분군



도 080.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도 081.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도 082.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도 083.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도 084.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산성 전경





도 085.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산성 전경



도 086.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산성 전경





도 087.  
함경북도 부령 부거 산성 전경



도 088.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중앙부





도 089.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산성



도 090.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산성





도 091.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일부와 산성



도 092.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일부와 산성





도 093.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중부



도 094.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중부의 일부





도 095.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중부의 일부



도 096.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중부 위쪽 석곽 노출분





도 097.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 석곽 노출 상태



도 098.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 석곽 노출 상태





도 099.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A 발굴 후 전경



도 100.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A 발굴 후 석곽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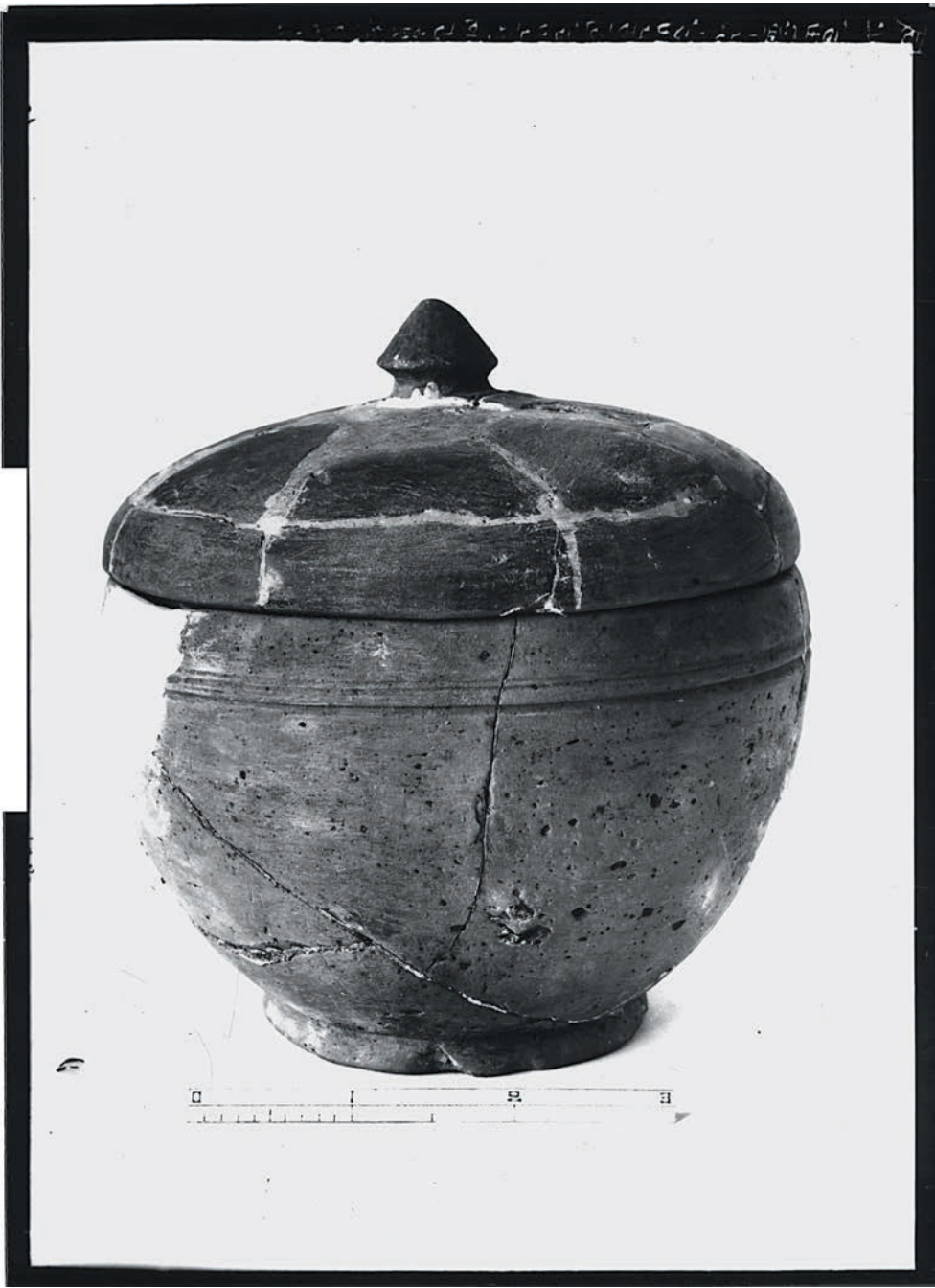


도 101.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B 적석원곽분 내부



도 102.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C 발굴 후 석곽





도 103.  
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토기

# 부록

도판목록  
참고문헌  
영문초록



## 도판목록

## 圖版目錄

<p><b>도 001.</b>  <b>함경남도 북청의 전 발해거성</b>  건판 693 원판번호 110519, 1911년, 소판</p>	<p><b>도 011.</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토성 전경</b>  건판 15438 원판번호 D110099, 1912년 대판</p>	<p><b>도 021.</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유적 수혈</b>  건판 1025 원판번호 110515, 1912년 소판</p>
<p><b>도 002.</b>  <b>함경남도 북청 하천리 발해왕 석총 복측</b>  건판 33408 원판번 호無440050, 1911년 소판</p>	<p><b>도 012.</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b>  건판 15439 원판번호D110100, 1912년 대판</p>	<p><b>도 022.</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석관</b>  건판 33590 원판번호 無450060, 1912년 소판</p>
<p><b>도 003.</b>  <b>함경남도 북청 하천리 발해왕 석총 조사 광경</b>  건판 33409 원판번호 無440051, 1911년 소판</p>	<p><b>도 013.</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b>  건판 15445 원판번호 D110106, 1912년 대판</p>	<p><b>도 023.</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1호 고분 발굴</b>  건판 1027 원판번호 110517, 1912년 소판</p>
<p><b>도 004.</b>  <b>함경남도 북청 거산산성</b>  건판 33435 원판번호 無1440078, 1911년 소판</p>	<p><b>도 014.</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伏虎寺 고분군</b>  건판 15440 원판번호 D110101, 1912년 대판</p>	<p><b>도 024.</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1호와 2호 고분 발굴</b>  건판 1028 원판번호 110518, 1912년 소판</p>
<p><b>도 005.</b>  <b>함경남도 북청 남대천에서 본 청해토성</b>  건판15363 원판번호D110025, 1911년 대판</p>	<p><b>도 015.</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군</b>  건판 15441 원판번호 D110102, 1912년 대판</p>	<p><b>도 025.</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1호 고분 측면</b>  건판 1029 원판번호 110519, 1912년 소판</p>
<p><b>도 006.</b>  <b>함경북도 부령에서 본 부거 전경</b>  건판 15443 원판번호 D110104, 1912년 대판</p>	<p><b>도 016.</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군</b>  건판 15444 원판번호 D110105, 1912년 대판</p>	<p><b>도 026.</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1호 고분과 토기</b>  건판 1024 원판번호 110514, 1912년 소판</p>
<p><b>도 007.</b>  <b>함경북도 부령 부거성지</b>  건판 15442 원판번호 D110103, 1912년 대판</p>	<p><b>도 017.</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b>  건판 33586 원판번호 無450056, 1912년 소판</p>	<p><b>도 027.</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2호 고분</b>  건판 1026 원판번호 110516, 1912년 소판</p>
<p><b>도 008.</b>  <b>함경북도 부령 부거토성</b>  건판 15447 원판번호 D110108, 1912년 대판</p>	<p><b>도 018.</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군 석관</b>  건판 33587 원판번호 無450057, 1912년 소판</p>	<p><b>도 028.</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출토 완甁</b>  건판 1071 원판번호 110573, 1912년 소판</p>
<p><b>도 009.</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토성 전경</b>  건판 15436 원판번호 D110097, 1912년 대판</p>	<p><b>도 019.</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군 석관</b>  건판33588 원판번호無450058, 1912년 소판</p>	<p><b>도 029.</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출토 완</b>  건판 1072 원판번호 110574, 1912년 소판</p>
<p><b>도 010.</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토성 전경</b>  건판 15437 원판번호 D110098, 1912년 대판</p>	<p><b>도 020.</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복호시 고분</b>  건판 33589 원판번호 無450059, 1912년 소판</p>	<p><b>도 030.</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출토 반甁</b>  건판 1073 원판번호 110575, 1912년 소판</p>

<p><b>도 031.</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출토 반</b>  건판 1075 원판번호 110578, 1912년 소판</p>	<p><b>도 044.</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 정면</b>  건판 2970 원판번호 140334, 1914년 소판</p>	<p><b>도 057.</b>  <b>함경남도 북청 북쪽 밖에서 본 청해토성 서벽</b>  건판 5514 원판번호 190120, 1919년 소판</p>
<p><b>도 032.</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 출토 금고리</b>  건판 1081 원판번호 110584, 1912년 소판</p>	<p><b>도 045.</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 좌측면</b>  건판 2971 원판번호 140335, 1914년 소판</p>	<p><b>도 058.</b>  <b>함경남도 북청 청해토성 서벽과 동벽</b>  건판 5515 원판번호 190121, 1919년 소판</p>
<p><b>도 033.</b>  <b>중국 길림 훈춘 고토성</b>  건판 923 원판번호 110410, 1912년 소판</p>	<p><b>도 046.</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b>  건판 2972 원판번호 140336, 1914년 소판</p>	<p><b>도 059.</b>  <b>함경남도 북청 발해왕고도지 석루 동단</b>  건판 5518 원판번호 190125, 1919년 소판</p>
<p><b>도 034.</b>  <b>중국 길림 훈춘 고토성</b>  건판 924 원판번호 110411, 1912년 소판</p>	<p><b>도 047.</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b>  건판 2973 원판번호 140337, 1914년 소판</p>	<p><b>도 060.</b>  <b>함경남도 북청 서쪽에서 본 발해왕고도지 석루</b>  건판 5519 원판번호 190126, 1919년 소판</p>
<p><b>도 035.</b>  <b>중국 길림 훈춘 고토성 전경</b>  건판 925 원판번호 110412, 1912년 소판</p>	<p><b>도 048.</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b>  건판 2974 원판번호 140338, 1914년 소판</p>	<p><b>도 061.</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이실총 전면</b>  건판 5693 원판번호 200047, 1920년 소판</p>
<p><b>도 036.</b>  <b>중국 길림 훈춘 고토성 전경</b>  건판 926 원판번호 110413, 1912년 소판</p>	<p><b>도 049.</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b>  건판 2975 원판번호 140339, 1914년 소판</p>	<p><b>도 062.</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이실총 측면</b>  건판 5694 원판번호 200048, 1920년 소판</p>
<p><b>도 037.</b>  <b>중국 길림 훈춘 고토성 전경</b>  건판 927 원판번호 110414, 1912년 소판</p>	<p><b>도 050.</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b>  건판 2976 원판번호 140340, 1914년 소판</p>	<p><b>도 063.</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이실총</b>  건판 5695 원판번호 200049, 1920년 소판</p>
<p><b>도 038.</b>  <b>함경북도 부령 부거토성 원경</b>  건판 2964 원판번호 140328, 1914년 소판</p>	<p><b>도 051.</b>  <b>중국 길림 두도구 서고성자 토성지 남벽</b>  건판 3071 원판번호 140441, 1914년 소판</p>	<p><b>도 064.</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일실총 측면</b>  건판 5696 원판번호 200050, 1920년 소판</p>
<p><b>도 039.</b>  <b>함경북도 부령 부거토성</b>  건판 2966 원판번호 140330, 1914년 소판</p>	<p><b>도 052.</b>  <b>중국 길림 두도구 서고성자 노성지 북벽</b>  건판 3072 원판번호 140442, 1914년 소판</p>	<p><b>도 065.</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일실총 정면</b>  건판 5697 원판번호 200051, 1920년 소판</p>
<p><b>도 040.</b>  <b>함경북도 부령 부거토성 서측면</b>  건판 2965 원판번호 140329, 1914년 소판</p>	<p><b>도 053.</b>  <b>함경남도 북청 안에서 본 청해토성 복문지</b>  건판 5510 원판번호 190116, 1919년 소판</p>	<p><b>도 066.</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군</b>  건판 5698 원판번호 200052, 1920년 소판</p>
<p><b>도 041.</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 전경</b>  건판 2967 원판번호 140331, 1914년 소판</p>	<p><b>도 054.</b>  <b>함경남도 북청 안에서 본 청해토성 복문지</b>  건판 5511 원판번호 190117, 1919년 소판</p>	<p><b>도 067.</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군과 용서 방면 전경</b>  건판 5699 원판번호 200053, 1920년 소판</p>
<p><b>도 042.</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b>  건판 2968 원판번호 140332, 1914년 소판</p>	<p><b>도 055.</b>  <b>함경남도 북청 청해토성 복문지와 북벽 서부</b>  건판 5512 원판번호 190118, 1919년 소판</p>	<p><b>도 068.</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동쪽 고분군 전경</b>  건판 5700 원판번호 200054, 1920년 소판</p>
<p><b>도 043.</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석관 노출 상태</b>  건판 2969 원판번호 140333, 1914년 소판</p>	<p><b>도 056.</b>  <b>함경남도 북청 청해토성 북벽 동부와 복문</b>  건판 5513 원판번호 190119, 1919년 소판</p>	<p><b>도 069.</b>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동쪽 고분군 전경</b>  건판 5701 원판번호 200055, 1920년 소판</p>



도 070.	도 082.	도 095.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중앙부 고분군 전경</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중부의 일부</b>
건판 5702 원판번호 200056, 1920년 소판	건판 11194 원판번호 330166, 1933년 소판	건판 37887 원판번호 無390140, 1939년 소판
도 071.	도 083.	도 096.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서쪽 고분군 전경</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 중부 위쪽 석곽 노출분</b>
건판 5703 원판번호 200057, 1920년 소판	건판 11195 원판번호 330167, 1933년 소판	건판 37888 원판번호 無390141, 1939년 소판
도 072.	도 084.	도 097.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서쪽 고분군과 토성지</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산성 전경</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 석곽 노출 상태</b>
건판 5704 원판번호 200058, 1920년 소판	건판 13747 원판번호 390129, 1939년 소판	건판 37889 원판번호 無390142, 1939년 소판
도 073.	도 085.	도 098.
<b>함경북도 부령 북쪽에서 바라 본 부거동 토성지 전경</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산성 전경</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 석곽 노출 상태</b>
건판 5705 원판번호 200059, 1920년 소판	건판 13748 원판번호 390130, 1939년 소판	건판 37890 원판번호 無390143, 1939년 소판
도 074.	도 086.	도 099.
<b>함경북도 부령 서북쪽에서 바라 본 부거동 토성지 전경</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산성 전경</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A 발굴 후 전경</b>
건판 5706 원판번호 200060, 1920년 소판	건판 13749 원판번호 390131, 1939년 소판	건판 37891 원판번호 無390144, 1939년 소판
도 075.	도 087.	도 100.
<b>함경북도 부령 부거동 고분과 토성지</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산성 전경</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A 발굴 후 석곽 내부</b>
건판 5707 원판번호 200061, 1920년 소판	건판 13750 원판번호 390134, 1939년 소판	건판 37892 원판번호 無390145, 1939년 소판
도 076.	도 088.	도 101.
<b>함경남도 북청 청해토성 북벽 외경</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중앙부</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B 적석원곽분 내부</b>
건판 8708 원판번호 290101, 1929년 소판	건판 13751 원판번호 390138, 1939년 소판	건판 37893 원판번호 無390146, 1939년 소판
도 077.	도 089.	도 102.
<b>함경남도 북청 청해토성 북벽 내경</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산성</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C 발굴 후 석곽</b>
건판 8709 원판번호 290102, 1929년 소판	건판 37881 원판번호 無390132, 1939년 소판	건판 37894 원판번호 無390147, 1939년 소판
도 078.	도 090.	도 103.
<b>함경북도 부령 북쪽에서 본 부거 고분군</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과 산성</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토기</b>
건판 11190 원판번호 330162, 1933년 소판	건판 37882 원판번호 無390133, 1939년 소판	건판 25226 원판번호 無704-3, 미상 소판
도 079.	도 091.	
<b>함경북도 부령 북쪽에서 본 부거 고분군</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일부와 산성</b>	
건판 11191 원판번호 330163, 1933년 소판	건판 37883 원판번호 無390135, 1939년 소판	
도 080.	도 092.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일부와 산성</b>	
건판 11192 원판번호 330164, 1933년 소판	건판 37884 원판번호 無390136, 1939년 소판	
도 081.	도 093.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b>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중부</b>	
건판 11193 원판번호 330165, 1933년 소판	건판 37885 원판번호 無390137, 1939년 소판	
	도 094.	
	<b>함경북도 부령 부거 고분군 중부의 일부</b>	
	건판 37886 원판번호 無390139, 1939년 소판	

## 참고문헌

## 參考文獻

### 1. 자료

『烏居委員提出 大正九年度古蹟調査寫眞原板目錄(間島及咸境道地方)』
『昭和四年度古蹟調査計畫』

### 2. 논저

白鳥庫吉, 1910,「金の上京就いて」『史學雜誌』第21卷 第10號.
唐晏, 1919,『渤海國志』, 求書齋.
鳥居龍藏, 1921,「朝鮮咸境道と沿海州の先史時代に就いて」『東亞之光』,第16卷 3・5號.
鳥山喜一, 1929,『渤海の上京龍泉府に就いて』.
黃維翰, 1931,『渤海國記』, 遼海書舍.
金毓黻, 1934,『渤海國志長編』, 華文書局, 千華山館； 1977,『渤海國志』, 宋遼金元四史資料叢刊(一), 臺北 文海出版社; 발해사연구회 옮김, 2008,『신편 발해국 지장편』상·중·하, 신서원.
東亞考古學會, 1939,『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の發掘調査』; 김진광 역, 2014,『동경성 발굴 보고』, 박문사.
滿洲帝國 民生部, 1942,『間島城古迹調査報告』(滿洲國古迹古物調査報告 第3編); 김진광 옮김, 2017,『일제강점기 간도 발해유적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劑藤甚兵衛, 1942,『半拉城-渤海の遺蹟調査』, 渾春懸公署.
旗田巍, 1951,『朝鮮史』.
도요호, 1957-1,「민족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과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당면 과업」『문화유산』.
駒井和愛, 1960,「渤海東京龍原府宮城址考」『慶祝董作賓先生六十五歲論文集』.
박시형, 1962,「발해사 연구를 위하여」『력사과학』1； 김정배 엮음, 1991,『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Ⅰ)』.대륙연구소출판부.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중국 동북지방의 유적 발굴보고(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주영현, 1966,『중국 동북지방의 고구려 및 발해유적 답사보고』, 사회과학원출판사.
박진욱, 1967-1,「우리나라 활축의 형태와 그 변천」『고고민속』.
리정기, 1967-4,「청해토성 및 교성리토성 답사보고」『고고민속』.
주영현, 1971,『발해문화』, 사회과학원출판사.
리준걸, 1984-2,「새로 발굴된 24개돌」『력사과학』.
리준걸, 1986-1,「발굴 및 조사보고:함경남북도 일대의 발해유적유물에 대한 조사보고」『조선고고연구』.
리준걸, 1987-4,「새로 알려진 고구려와 발해의 금귀걸이」『조선고고연구』.
김종혁·김지철, 1989-2,「신포시 오매리 금산발해건축지 발굴중간보고」『조선고고연구』.
김종혁·김지철, 1990-2,「신포시 오매리 절골1호 발해건축지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김종혁·이준걸, 1990-3,「창덕무덤떼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김종혁, 1990-4,「청해토성과 그 주변의 발해유적」『조선고고연구』.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조선유적유물도감』8(발해).
리준걸, 1991-1,「궁심무덤떼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리준걸, 1991-2,「릉산동 및 송정동 무덤떼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김종혁·김지철, 1991-3,「금산 2건축지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한인덕, 1991-4,「김책시 동흥리 24개 돌유적」『조선고고연구』.
김종혁·김광남, 1992-2,「화대군 금성리 무덤떼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한인덕, 1993-1,「성상리토성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김광남, 1994-1,「금성리 1호 무덤에서 나온 사람뼈의 인류학적 특징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리창진, 1995-3, 「오매리자기가마터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리대희, 1997, 「『고려후국』의 령역」『발해사연구논문집』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류병홍, 1997-1, 「동해안 일대의 발해유적발굴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장철만, 1997-1, 「동해안일대의 발해무덤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한인덕, 1997-1, 「성상리토성과 그 성격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한인호, 1997-1, 「금호지구 오매리절터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김종혁, 1997-4, 「동해안일대 발해유적의 고구려적성격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韓圭哲, 1998, 「渤海 西京 鴨綠府 研究」『韓國古代史研究』, 한국고대사학회.

리창언, 1998-4, 「최근에 조사발굴된 오매리 발해자기가마터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한인덕, 1998-4, 「새로 발굴된 연차골 제1호무덤은 발해의 왕릉급무덤」『조선고고연구』.

한인덕·김남일, 2000-1, 「연차골 제2지구 제1호무덤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한인덕·김남일, 2000-4, 「연차골 제1지구 무덤들에서 발굴된 무기무장」『조선고고연구』.

김종혁, 2001, 『동해안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원; 2002, 『동해안 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연구』, 중심.

김남일, 2002-3, 「다래골 및 독동무덤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朱國忱·朱威, 2002, 『渤海遺迹』, 文物出版社.

牟乙女雅博, 2003, 「東京城の發掘」『해동성국 발해』(서울대박물관 특별전 도록).

정규홍, 2005, 「일제(日帝)에 의한 문화재 수난의 역정」『우리 문화재 수난사』, 학연문화사.

최응선, 2005-1,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발해벽화무덤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鳥居龍藏 著·최석영 譯, 2007, 『인류학자와 일본의 식민지 통치』, 서경문화사.

이순자, 2008,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한규철, 2008, 「북한의 발해유적과 성격」『渤海와 東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김동우, 2009, 「북한의 발해사 연구와 전망」『동아시아의 발해사 쟁점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양시은, 2010, 「일제강점기 고구려 발해 유적조사와 그 의미: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고구려발해연구』38.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2011,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오영찬, 2011,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한국문화』55.

김진광 편, 2012, 『북국 발해 탐험』, 박문사.

김남일·김성철, 2013-2, 「부거리 연차골 2지구 발해돌칸흙무덤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지화산·김광혁, 2013-2, 「다래골무덤떼 2차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김재웅·김영일, 2013-3, 「다래골돌칸흙무덤떼 3차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구난희 등, 2015, 『발해 유적 사전- 중국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5,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

장철만·최준혁, 2015-3, 「화대군 장춘리 발해돌칸흙무덤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국립김해박물관, 2016, 『石器時代 鳥居龍藏 調査 琉璃乾板』(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8집).

김남일·리정희, 2016-3, 「회령시 궁심2지구 발해무덤떼 돌관무덤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 Abstrac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olds a collection of some 38,000 glass dry-plates for photograp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f which 103 are related with Balhae. Given that there is a shortage of image-based materials about historic sites associated with the Balhae kingdom, which are not easily accessible at present due to their being located in North Korea, these plates are particularly precious materials that greatly assist our understanding of the sit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surveys of historic sites related with the Balhae kingdom were conducted by Japanese governmental scholars, while Korean and Chinese scholars partially in volved or were excluded from the surveys. The surveys carried out at that time provided basic materials for subsequent surveys, but have had limitations as they were not carried out for purely academic purposes. Although Chinese scholars partially recognize the results of the surveys conducted by Japanese scholars, they basically hold a cynical view of the latter as looters or destroyers of historic sites and as having muddled the waters of academic research.

The glass dry-plates are important materials in their own right as primary materials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historic sit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t is expected that these materials will be useful for future studies on the history of Balhae.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자료집 제12집

## 유리건판으로 보는 발해 유적

REMAINS OF BALHAE KINGDOM:  
DOCUMENTATIONS IN GELATIN DRY PLATES

발행

2019년 12월 24일

First Edition, December 24, 2019

발행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t. 02-2077-9000

www.museum.go.kr

National Museum of Korea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0483, Republic of Korea

제작 및 디자인

편집전문회사 꿈과놀다

04623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12-9 한아빌딩 304호

t. 02-2277-3986 f. 02-2279-3986

인쇄

반디컴피앤씨

ISBN

978-89-8164-206-8 93910

(C)2019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